

시선

사설

정원 감축·교원 충원
적절한 지점 찾아야

-‘전임교원 확보율 77%’를 바라보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77.06%)은 고려대(90.05%), 성균관대(101.14%), 연세대(89.45%), 한양대(80.91%) 등 주요 경쟁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데이터 앞에서 우리학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가령 확보율 100%를 맞춘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은 산술적으로 전임교원 420여 명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학교의 재정여건에 커다란 부담을 강요한다. 인건비와 연구비만 해도 연간 수백 억 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될 것이며, 충원되는 전임교원의 수 만큼 늘어나야 할 교수 연구 공간은 현행 스페이스21 사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적 공간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민감하고도 까다로운 방향은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점진적인 재학생 수 감축’이다. 가령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수(1,421명)와 거의 동일한 전임교원(1,423명)을 보유한 성균관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101.14%에 이른다. 이는 재학생 수가 우리학교 대비 약 6,000명 가량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우리학교가 각 전공단위 별로 적절한 정원감축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것 보다 큰 재정적 압박 없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의 정책 방향성이 ‘둘’ 중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전임교원 420여 명’을 뽑거나 ‘재학생 수 6,000명’을 줄이는 것은 두 가지 모두 극단적인 해법이며, 이로 인해 공동체와 구성원은 커다란 논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학평가 결과들을 분석하며, 그간 우리신문은 이 같은 방향성들을 중도적으로 아우르는 현명한 해법의 모색에 대해 꾸준히 주문해온 바 있다. 요컨대 대학은 적절한 입학정원 수와 재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는 가운데,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며 적절한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의 확충이 교육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요소임은 분명하나 교원 채용이 재정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 또한 염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가 처한 다양한 환경과 입장은 감안할 때,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학교의 재학생 수가 교육환경 개선 작업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서로 상반되 보이는 ‘두 가지의 방향’ 사이의 적절한 어느 지점을 찾아내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학교에 요구되는 자세라고 하겠다. 결국, 우리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주의 주제 - 운동공간 부족

유연한 행정과 책임 의식

강경진
(정기자)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뻔히 비어있는 운동장을 두고 하나의 운동장에서 세 종목이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거나, 충분한 안전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기형적인 연습을 할 수 밖에 없는 동아리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도 나름의 사정을 말했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기본적으로 체육 시설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하면 시설 훼손이 심해진다”며 “예를 들어 농구장처럼 우레탄으로 된 바닥의 경우, 일반 학생에게 대여된 이후 바닥 손상이 너무 심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할 운동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부장은, 만에 하나 한 번 훼손된 운동장에서 학생이 부상이라도 입을 경우 체육대학이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실제로 필드하키장을 이용하다가 다친 학생이 체육대학에 관리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다.

정답은 운동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여건을 볼 때 이상론일 뿐이다. 결국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지금의 운동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일반론적인 답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책임’이 담보돼야 한다는 단서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결국 책임 의식을 전제로 한 유연한 행정 마인드의 문제인 셈이다.

추석 귀향귀경 버스
오는 23일까지 예약 접수

미디어 여론동향 2015. 9. 1 ~ 9. 13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올해 추석버스는 이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추석 귀향·귀경버스 노선 최소 운영인원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대학주보 온라인, 2015.9.8.) 서울캠퍼스(서울캠) 생활협동조합은 올해 추석버스의 최소 인원을 기준 20명에서 15명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생협은 “15명이면 적자지만 지방 학생을 위해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버스 온라인 예약은 생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노선은 25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캠 대운동장에서 출발한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국제캠 페스 체육대학 운동부원들의 심야시간 소음 발생’에

대한 글(#경희숲_10700, 2015.9.7)이 화제다. 글쓴이는 야간에 운동장을 두고 기숙사 안뜰에서 운동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구성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체육부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체대 학생들은 내려와서 직접 이야기하라는 등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은 333개의 ‘좋아요’와 62개의 댓글이 달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댓글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 일부 체대생이 물 흐리고 있는 듯’, ‘기숙사 층장도 체대생이고, 사감실도 물라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아침시간 승강기’에 대한 글(#경희숲_10719, 2015.9.9)도 있었다. 글쓴이는 ‘아침 시간에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3층 가면서…’라고 짧은 글을 남겼지만 50여 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2층 가는데도 타더라’, ‘나는 7층까지 걸어간다’는 등의 댓글과 ‘염치불구라는 장애’라는 의견도 보였다.

우리학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분야(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에 선정됐다.(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 선정/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9.7)

2015.9.7 사업 선정으로 최대 7년간 총 1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에는 의과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등에서 15명의 기초, 임상 교수가 참여해 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의료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전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장인 의학전문대학원 박현국 교수는 “대형 국책사업에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루 참여하는데, 경희대 교수가 주축이 된 센터가 선정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에서 의료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5 대학교육의 질 평가에서 우리학교 학생의 65%가 “인성교육을 받았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2015 대학교육의 질 평가…“인성교육 받았다” 경희대 65%로 1위/중앙일보, 2015.9.8) 대학생 6,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성·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9.8%에 그쳤지만 우리학교의 응답비율은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허마니티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학생을 교양 있는 지성인, 책임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학내 SNS, ‘비난글’이
‘비판글’로 가야하는 이유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최근 연달아 터지는 국제캠퍼스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학내의 관심을 끌 만한 중대한 이야기였다. 총학생회 예산안 문제, 체육부 기숙사 소음 건 등 그간 반복돼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이 ‘마찰’들은 학생들의 날선 비판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중 소셜 네트워크, 즉 SNS의 역할은 단연 주목됐다. 그간 ‘대자보’나 ‘인시위’ 등의 형태에 물려왔던 일련의 ‘학내 의견’ 형태는 이제 명확히 변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은 존재한다

‘현대사회와 미디어’ 수업 시간에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즈음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보의 범람’은 IT 기기와 개개인마다 주어진 현대 사회에서 눈부신 속도를 실감케 한다. 즉, 정보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달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이 ‘아래서’ 받아보는 형태가 돼 버렸단 이야기다. 물론 이 행위를 ‘기사’를 만들고 ‘언론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건’과 ‘개인의 해석’이 함께 포장된 채 온라인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때때로 긍정적이면서도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 사람마다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 이때 합당한 근거를 가진 하나님의 ‘비판’은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하지만 동시에 SNS는 ‘가상공간’이라는 특징을 등에 업고 반드시 어두운 이면을 만들어낸다. 근거 없는 관점인 ‘비난’은 사건을 원만한 해결보다는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얼룩지게 해 본질을 오도하고 더럽힌다.

최근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의 체육부 기숙사 소음 동영상은 수많은 댓글을 불러온다. 관점은 조금씩 다를 지라도 예의를 지킨 정당한 비판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됐다. 실제로 학생들의 여러 비판을 수렴해 체육부와 체육대학 측은 ‘9시 소음 금지’ 규칙 제정, 학생들과 체육대학 사이의 의견 피드백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등 실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의견을 표출했던 학생들이 직접 이뤄낸 갈등 해결의 한 부분일 것이다.

반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또한 많았다. 욕설과 비방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만 집중한 댓글들은 결국 최초의 ‘논의’에서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그 뜻을 변질시켰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취재를 위해 만났던 취재원 중 일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었다.

개인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시대다. 바라보는 시야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존재한다. 모두가 감성적인 ‘비난’이 아닌 이성적인 ‘비판’을 바라본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을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편월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